

영유아 안전 관련 학술연구의 동향 및 내용 분석: 2010년~2017년

Analysis on Trends and Contents of Research Related to Young Children's Safety

성미영*, 정현심**, 이서경***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학과***

Mi-Young Sung(minie72@dongduk.ac.kr)*, Hyun-Sim Jung(bt-77@hanmail.net)**,
Seo-Kyeong Lee(sskk94.lee@gmail.com)***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영유아 안전 관련 학술 연구의 동향 및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 총 75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논문은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카이검증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영유아 안전 관련 논문은 2016년과 2017년 가장 많이 게재되었고, 영아 안전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연구유형은 41편의 논문이 실천연구로 나타났고, 기초연구, 기타 순이었다. 연구방법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의 논문이 양적연구방법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안전교육, 안전지식, 안전사고 등의 주제어가 중요한 주제어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 대상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영유아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 동향과 내용을 분석하여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안전 관련 후속연구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재난안전과 같은 연구주제 탐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 중심어 : | 영유아 | 안전 | 연구동향 | 내용 분석 | 언어 네트워크 분석 | 워드 클라우드 분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and contents of the research related to young children safety published in the domestic KCI and the candidate journals from 2010 to 2017. To analyze this, we selected 75 articles related to safety for young children published in the KCI and candidate journals from 2010 to 2017. A total of 75 papers were analyzed for frequency, percentage and χ^2 using the SPSS Win 23.0 progra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rticles related to young children safety were published the most in 2016 and 2017 and related to infant safety were the least. Next, more than half of the research methods were conducted by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the necessity of safety education by analyzing trends and contents of research related to young children safety in situations where safety accidents for young children are frequent and the importance of young children safety is more emphasized.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will provide basic data on research topics such as disaster safety who need further research.

■ keyword : | Young Children | Safety | Research Trends | Contents Analysis | Semantic Network Analysis | Word Cloud Analysis |

I. 서론

영유아기 안전은 발달 및 교육의 어떤 측면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다.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는 기본생활 영역, 신체운동·건강 영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내용범주를 별도로 구분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영유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2]. 신체운동·건강 영역에서는 ‘안전하게 생활하기’ 내용범주에 ‘안전하게 놀이하기’,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 ‘비상시 적절히 대처하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7년 11월부터 시행된 평가인증 통합지표에서도 건강·안전 영역에 안전교육 및 사고대책 등 안전관련 지표를 포함시키고 있다[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의 별표3에서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교통안전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5개 분야에서 안전교육의 실시주기,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명시하고,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의 안전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평가인증, 아동복지법 등에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교육부에서는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5년 유·초·중·고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7대 표준안에는 생활, 교통, 폭력·신변, 약물·사이버, 재난, 직업, 응급처치가 포함되며,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신체운동·건강 영역과 사회관계 영역에서 안전교육이 진행되며, 체험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이처럼 최근 들어 유아교육 분야에서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 먼저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안전사고의 현황을 살펴보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1세 영아의 경우 운동 기능을 연습하고 발달시켜 나감에 따라 질식과 낙상 등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2세 영아도 1세 영아와 유사한 안전사고 경향을 보이지만 안전사고

발생 시 손상 정도가 더 심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달리 3~5세 유아의 경우에는 운동 능력이 향상되어 낙상의 위험은 줄어든 반면 교통안전사고와 놀이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4].

영유아의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나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과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실시할지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영유아교육기관에서는 실내외 시설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012년~2016년 동안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243% 증가하였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영유아의 부주의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데, 사고 유형 중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안전사고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5]. 이상에서 살펴본 최근 안전사고 현황 자료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한층 더 강조한다.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영유아의 안전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에서는 어떤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 이루어진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연구내용과 결과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영유아의 안전 관련 연구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진행된 동향 분석은 몇몇 연구에 그치고 있다.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은 2009년 처음 실시되었으며[6], 그 이후 2013년[7]과 2017년[8][9]에도 안전 관련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최근까지 실시된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은 유아만을 대상으로 분석되거나, 분석대상 기간에 차이를 두고 연구가 시행되었다. 또한 정량적인 측면에서 빈도 및 백분율을 위주로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분석되는 등 연구마다 분석방식이 다소 중복적인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아와 유아,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로 구분하여 그 연구추이를 살펴보고, 워드 클라우드 분석과 카이검증 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방법으로 연구동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2010년을 기점으로 최근 게재된 안전 관련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0년 단위의 연대별 시기 구분을 통해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연대인 2010년대에 초점을 두어 2010년~2017년까지 시기를 분석대상 시기로 선정하였다. 이 시기 동안 실시된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들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검토함으로써 최근의 연구동향이 1990년대 및 2000년대 연구동향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2017년 국내학술지 중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발표된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시기, 연령분포, 연구유형 및 주제, 연구방법, 연구내용 및 결과에 따라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10년~2017년 사이에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수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2010년부터 2017년까지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영유아 안전 관련 논문의 연도별 게재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2010년부터 2017년까지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영유아 안전 관련 논문의 연령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2010년부터 2017년까지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영유아 안전 관련 논문의 연구유형 및 주제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2010년부터 2017년까지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영유아 안전 관련 논문의 연구방법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 2010년부터 2017년까지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영유아 안전 관

련 논문의 연구내용 및 결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학술지 중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영유아 안전 관련 논문 75편이다. 영유아 안전 관련 논문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과 한국학술정보(KISS)의 학술지 논문 검색에서 ‘영아 안전’과 ‘유아 안전’ 그리고 ‘영유아 안전’을 키워드로 하여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게재된 국내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총 10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나, 그 중 KCI 등재 학술지와 등재후보지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 30편이었다. 30편 중 KCI 등재 학술지와 중복되는 논문이 3편, 보고서가 5편, 포스터 발표 자료가 6건, 학술대회구두 발표자료가 2건으로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이 아닌 학술지 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분석 기준 및 분석 방법

2.1 연도별 및 연령분포별 현황

본 연구에서 영유아 안전 관련 논문의 연도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연구를 연도별로 살펴봄으로써 연구시기별 추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안전 관련 연구를 연령분포에 따라 구분해 살펴봄으로써, 영아, 유아,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의 추이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2.2 연구유형 및 주제의 분석 준거

본 연구의 연구유형 및 주제에 따른 분석은 Best와 Kahn[10]의 연구 분류를 참고하여 분류 기준을 사용한 정희영 등[11]과 최혜순[12]의 분석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

실천연구, 기타로 분류하여 연구주제를 분석하였다.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준거의 세부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유형 및 주제의 분석 준거

연구유형	연구주제
기초연구	인식 및 실태, 현황 분석
실천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수방법의 효과
	안전 관련 변인
기타	안전 평가
	연구동향 분석, 내용 분석 등

2.3 연구방법의 분석 준거

본 연구의 연구방법별 분석은 김은희, 유준호[7], 조숙영, 류은미[9], 광승주, 이승숙, 김혜숙[13]의 분석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방법의 분석 준거

구분	세부 내용
문헌연구	문헌연구
양적연구	실험연구, 조사연구, 상관연구
질적연구	문화 기술적 연구, 사례연구, 심층면접 및 관찰
혼합연구	문헌·양적연구, 문헌·질적연구

2.4 연구내용 및 결과의 분석 준거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의 연구내용 및 결과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주제의 5가지 범주(인식 및 실태 현황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방법의 효과, 안전 관련 변인, 안전 평가, 연구동향 분석 및 내용 분석)로 연구내용과 결과를 고찰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수집된 총 75편의 논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에 대한 기본 분석 방향을 설계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문제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카이검증을 사용해 분석하

였다. 주제어 경향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인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을 이용해 도식화하였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은 Tagxed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2010년~2017년 국내 KCI 등재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영유아의 안전 관련 논문 75편을 대상으로 이들 논문의 연구경향과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1. 연도별 및 연령분포별 현황 분석

2010년~2017년 게재된 영유아 안전 관련 분석대상 연구 75편의 연도별 현황은 [표 3]과 같다. 이 기간 동안 게재된 영유아 안전 관련 논문은 2010년 5편(6.7%)을 시작으로 하여 2011년에는 6편(8%), 2012년에는 9편(12%)의 논문이 게재되어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의 편수가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7편(9.3%),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8편(10.7%)으로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이후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5편(20%), 17편(22.6%)이 게재되어 2년간 전체 연구대상 논문 75편의 절반 정도의 논문(32편)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연도별 현황 분석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편수 (편)	5	6	9	7	8	8	15	17	75
비율 (%)	6.7	8	12	9.3	10.7	10.7	20	22.6	100

2010년~2017년 게재된 안전 관련 연구의 연령분포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75편의 논문 중 문헌연구 14편을 제외한 61편의 연구 중에서 유아와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연구들은 각각 27편이었던 반면, 영아의 안전과 관련된 연구는 7편에 불과하였다.

표 4. 연령분포별 현황 분석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영아	1	2	1		1	1		1	7
유아	2	2	1	4	4	1	7	6	27
영유아	2	2	6	1	2	4	5	5	27
문헌			1	2	1	2	3	5	14
편수 (편)	5	6	9	7	8	8	15	17	75

2. 연구유형 및 주제 동향 분석

먼저 연구대상 75편의 논문을 연구유형 및 주제에 따라 분석한 결과, 영유아 안전 관련 논문의 연구유형 및 주제별 연구동향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논문 75편 가운데 '실천연구'인 논문은 41편(54.7%)로 분석대상 논문 중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기초연구(25편), 기타(9편)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유형 및 주제 동향 분석

연도	기초 연구	실천연구			기타	편수 (편)	비율 (%)
	인식 및 실태, 현황 분석	프로그램 개발, 교수방법 효과	안전 관련 변인	안전 평가	연구 동향, 내용 분석		
2010	3	2				5	6.7
2011	1	3	2			6	8
2012	3	4	2			9	12
2013	2	2		2	1	7	9.3
2014	4		3		1	8	10.7
2015	3	1	2		2	8	10.7
2016	2	9	2		2	15	20
2017	7	3	4		3	17	22.6
편수 (편)	25	24	15	2	9	75	100
비율 (%)	33.3	32	20	2.7	12	100	

연구주제에 따라 살펴보면,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연구에서 인식 및 실태, 현황 분석 관련 연구가 75편 중 25편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한 것을 볼 때, '안전' 관련 연구의 연구주제, 즉 '인식, 실태, 현황 분석', '프로그램 개발, 교수법 효과', '안전 관련 변인', '안전 평가', '연구 동향, 내용 분석' 중 인식 및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방법 효과 논문이 24편(32%), 안전 관

련 변인에 대한 연구가 15편(20%)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 안전 관련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거나, 이들 논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논문은 전체 75편의 논문 중 9편(12%)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유아 안전 평가에 관한 연구는 2편(2.7%)밖에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 평가에 관한 연구의 수행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연도별 현황에서 2016년부터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이 시기 연구유형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0년~2015년과 2016년~2017년으로 시기를 구분해 연구시기에 따라 연구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연구, 실천연구, 기타의 연구유형은 연구시기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6. 연구시기에 따른 연구유형에 대한 카이검증

(N = 75)

구분	연구유형			전체	χ ²
	기초연구	실천연구	기타		
2010 ~ 2015	16(37.2%)	23(53.5%)	4(9.3%)	43(100%)	1.09 (df=2)
2016 ~ 2017	9(28.1%)	18(56.3%)	5(15.6%)	32(100%)	
전체	25(33.3%)	41(54.7%)	9(12.0%)	75(100%)	

연구주제 동향과 더불어 75편의 연구에 제시된 주제어 중 빈도가 2회 이상인 234개를 분석한 결과, '안전교육(47회)', '유아(20회)', '안전지식(16회)', '안전(14회)', '안전사고(13회)' 순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주제어의 경향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 분석으로 주제어를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주제어 경향성 분석

3. 연구방법 동향 분석

먼저 연구대상 75편 논문을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등의 연구방법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한 결과 나타난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의 동향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양적연구는 75편의 논문 가운데 38편, 즉 50.7%로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전체 연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적연구 중에서는 조사연구가 21편(2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실험연구가 12편(16%), 상관연구가 5편(6.7%)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 중 양적연구 다음으로 문헌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는데, 75편의 논문 가운데 14편(18.7%)이 문헌분석 방법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심층면접이나 관찰에 의한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6편(8%)이 수행되었다. 혼합 연구방법의 논문들은 문헌연구와 양적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하였거나 문헌연구와 질적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한 연구 혹은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한 연구들이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표 7. 연구방법 동향 분석

연도	문헌 연구	양적연구			질적 연구 심층 면접 및 관찰	혼합 연구	편수 (편)	비율 (%)
		실험 연구	조사 연구	상관 연구				
2010		2	2		1	5	6.7	
2011		2	1	2		1	6	
2012	1	3	3	1		1	9	
2013	2		1			4	7	
2014	1		3		1	3	8	
2015	2	1	1		1	3	8	
2016	3	2	4		2	4	15	
2017	5	2	6	2	1	1	17	
편수 (편)	14	12	21	5	6	17	75	
비율 (%)	18.7	16	28	6.7	8	22.6	100	

또한 연구방법이 연구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0년~2015년과 2016년~2017년의 두 시기로 구분해 연구시기에 따른 연구방법을 카이검증

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의 연구방법은 연구시기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8. 연구시기에 따른 연구방법에 대한 카이검증 (N = 75)

구분	연구방법				전체	χ ²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2010~ 2015	6(14.0%)	22(51.2%)	3(7.0%)	12(27.9%)	43(100%)	2.56 (df=3)
2016~ 2017	8(25.0%)	16(50.0%)	3(9.4%)	5(15.6%)	32(100%)	
전체	14(18.7%)	38(50.7%)	6(8.0%)	17(22.7%)	75(100%)	

4. 연구내용 및 결과 동향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의 연구내용 및 결과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주제의 5가지 범주(인식 및 실태 현황 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방법의 효과, 안전 관련 변인, 안전 평가, 연구동향 분석 및 내용 분석)로 연구내용과 결과를 고찰하였다.

첫째, 영유아 안전 관련 인식, 실태에 대한 현황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영유아보육기관에서의 안전사고 실태에 관한 연구는 교사의 안전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 [14-17], 문화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실태나 중독사고 실태 관련 연구 [18][19], 가정에서의 안전사고 실태 관련 연구 [20][21] 등 안전사고 실태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는 방사능 오염 안전에 대한 교사 인식 관련 연구 [22]에서 시작되어 취약계층 관리 실태 관련 연구 [23], 영유아 용 물품의 이용과 성능 실태 관련 연구 [24-26], 바깥놀이 에 대한 부모의 안전 인식 [27]을 거쳐 2017년에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대한 안전업무 담당자의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 [28]가 실시되었다. 안전교육 인식이나 실태에 관한 연구는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실태 관련 연구 [29][30]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개념도 연구 [31][32],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관련 연구 [33-37]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2017년에는 가정에서 안전교육의 실태 관련 연구 [38]도 수행되었다.

둘째, 영유아 안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수방법

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영아 대상 안전프로그램이나 안전교육활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39][40], 영유아, 부모, 교사와 예비교사를 위한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41-47], 유아교육기관과 가정 연계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48-50]가 수행되었다. 유아 대상 안전프로그램이나 안전교육활동 효과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데,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51], 식품안전, 재난안전, 화재안전, 교통안전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52-55], 그림책, 이야기만들기, 역할극, 동영상 등 다양한 교육방법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56-62]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셋째, 영유아 안전 관련 변인의 경우 안전지식 관련 변인[63][64], 부모 및 교사의 안전수행과 안전행동 관련 변인[65-70], 안전수행 관련 변인 간의 관계 분석 연구[71], 안전수행에 대한 생태학적 변인이나 안전사고의 잠재적 요인에 관한 연구[72][73],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실천 관련 연구[74] 등이 최근 실시되었다. 환경 관련 변인의 경우 가정내 안전사고 발생 관련 변인 연구[75], 유아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실내환경 관련 연구[76][77]가 수행되었다.

넷째, 영유아 안전에 대한 평가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평가지표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78]와 안전지식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연구[79]가 이루어졌다.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의 동향과 내용을 분석한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동향 분석 이외에 누리과정 안전교육 내용 분석[78][80][8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분석[83], 안전 관련 과제[84][85] 등이 진행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영유아의 안전에 관련된 연구 75편을 대상으로 이들의 연구동향 및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연도별 현황, 연령분포별 현황, 연구유형 및 주제별 연구동향, 연구방법별 연구동향, 그리고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구의 편수가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 감소하였고,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였고, 2016년부터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다시 급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2016년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교육부에서 2014년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2015년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을 발표한 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안전 관련 연구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7][9]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까지 분석대상으로 포함하고 그 중에서 유아 안전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본 연구[9]에서는 2013년 안전교육 관련 연구가 감소하다가 2015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안전 관련 연구를 영아, 유아,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로 구분하여 연령분포를 살펴본 결과 영아 안전과 관련된 연구는 7편으로, 유아 안전과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각 27편)의 1/4정도에 불과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유아 안전 및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들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영아 안전과 관련된 연구들은 매년 한 두 편에 불과하였고, 2013년과 2016년에는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9]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영아 안전에 대한 논문이 부족함을 알려주고, 앞으로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영아 안전과 관련된 연구들이 프로그램이나 교육활동 개발 및 효과 검증에 치중되어 있어 다양한 안전 분야에서 영아의 발달수준에 맞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유형과 연구주제에 따라 분석한 결과, 실천 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이 전체 분석대상 논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실천연구 중에서는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수방법을 시행하여 그 효과를 살펴본 논문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안전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방법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2014년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교적 꾸준히 게재되었으며, 안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또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는 2011년에서 2012년까지 4편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1편의 논문이 안전 관련 변인을 다룬 것으로 나타난 점을 통해 볼 때, 최근에는 단순히 안전 자체에 대한 분석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유아 안전 평가에 관한 연구는 선행연구[8][9]에서와 유사하게 2편밖에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안전 평가에 관한 연구의 수행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안전 평가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더 필요함을 보여준다.

실천연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에 이어, 나머지 34편의 논문 중 25편의 논문이 기초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게재된 기초연구는 25편 모두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인식 및 실태, 현황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전 관련 연구의 연구주제 중 ‘인식 및 실태,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관련 연구가 24편으로 역시 많이 수행되고 있다. 2000년 이전 연구에서도 안전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오랜 기간 지속된 안전 관련 인식 및 실태, 현황 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영유아 안전 관련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거나, 이들 논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등의 연구는 9편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전체 분석대상 논문 중 이론연구나 실천연구 이외에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분이긴 했으나, 이러한 동향 분석이 일정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안전 관련 연구동향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양적연구는 전체 연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이 수행된 연구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양적연구 중에서는 조사연구가 21편으로 가장 빈번하게 실시되었고, 다음으로 실험연구(12편), 상관연구(5편)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사연구가 가장 빈번하게 실시된 이유는 질문지를 통해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자료수집과 분석이 용이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질문지법이 가장 많이 활용된 연구방법으로 나타난 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6][7].

양적연구 다음으로 문헌연구(14편)가 많이 수행되었고, 심층면접이나 관찰에 의한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6편으로 양적연구 중 상관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의 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혼합연구방법의 논문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 안전 관련 논문은 2010년 세 가지 연구방법으로만 분석되었으나 2017년에는 여섯 가지 연구방법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연구방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연구시기에 따라 연구유형과 연구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구시기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최근 2년 사이에 연구가 급증한 것을 바탕으로 2010년~2015년, 2016년~2017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최근 연구의 급증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인지, 연구유형이나 연구방법에서 경향성의 변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시기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논문의 양은 증가하였으나, 연구유형이나 연구방법에서의 경향은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후속연구에서 안전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테면 안전의 세부적인 영역에 관한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연구내용 및 결과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안전사고 실태와 안전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에 대한 연구 등이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실시되었고, 2017년에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대한 안전업무 담당자의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가 실시됨으로써 교육부

의 안전교육 관련 최근 정책이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에 직접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원연수, 안전교육표준안, 시설계획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면 이에 대한 영유아교육 현장의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에서 인식 및 현황에 대한 분석은 기초자료 확보의 차원에서라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안전프로그램이나 안전교육활동의 개발 또는 그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영아, 유아,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꾸준히 수행되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과 가정 연계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안전교육프로그램은 과거에도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들이 실시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대상의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아 상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지역 특성에 맞추거나 상황중심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프로그램 구성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동향은 향후에도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함을 예상케 한다.

영유아 안전 관련 변인의 경우 안전수행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분석을 살펴보는 연구가 등장하는 등 안전 자체에 대한 관심 이외에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영유아 안전에 대한 평가 연구는 2013년에 이루어진 두 편의 연구뿐 최근에는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이 게재되지 않았다. 평가인증 통합지표가 2017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안전교육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안전지식 평가도구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게재된 영유아 안전 관련 논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안전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유아나

영아 대상 관련 연구를 하나로 묶어서 분석하는 데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모두의 안전 관련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연구시기별로 영유아 안전 관련 논문의 연령분포별 현황을 확인해 추후 연구가 필요한 대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연구내용과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함과 동시에 카이검증을 실시함으로써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카이검증 결과 2016년~2017년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유형과 연구방법이 2010년~2015년에 게재된 논문과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 시기 연구가 기존연구와 다르지 않은 연구경향을 보인다는 것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음 단계의 연구로 나아가기 위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 안전 관련 최근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해당 연구들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영유아 안전에 관한 후속연구에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 어떤 측면인지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후속연구의 나아갈 방향과 연구주제, 예를 들어 영유아 재난안전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육실습 관련 연구동향분석[86] 등 최근 실시되는 연구동향 분석에서는 주제어의 경향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 분석과 같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으나, 기존의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동향 분석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사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의 주제어에 대한 경향성을 도식화하여 살펴본 것은 의미 있는 분석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통해 후속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는데, 키워드를 제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분석 내용 논문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국내학술지 중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한정하여 영유아의 안전 관련 연구동향과 내용을 분석하였으나, 국내 안전 관련 연구의 경향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KCI 등재지 및 등

재후보지 이외에도 전국 규모의 학술지, 대학 및 연구소 논문집, 학술대회발표 논문집 등과 학위논문까지 포함하여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경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은 주제어의 빈도만으로 이루어졌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방향성과 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16년 경주 및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2017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전례 없는 폭우와 폭염, 한파, 대설 등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다양한 자연재해는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에서 재난안전 관련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재난안전 관련 연구 현황을 재난유형별로 구분하여 재난안전교육 매뉴얼 개발, 재난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등의 실시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1]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2013.
 [2] 보건복지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교사용 지침서, 2013.
 [3] 한국보육진흥원,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 지표안내 자료집, 2017.
 [4] 성미영, 민미희, 정현심, 아동안전관리, 학지사, 2013.
 [5] 중앙일보, “5년 반 동안 어린이집에서 55명 사망했는데... 45인이 원인미상,” 2017.9.28.
 [6] 이명환, “유아안전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4권, 제3호, pp.75-98, 2009.
 [7] 김은희, 유준호, “유아안전에 대한 연구동향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8권, 제3호, pp.259-286, 2013.
 [8] 안현아, 곽승주, “영유아 안전에 대한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 연구동향 탐색,” 어린이미디어연구, 제16권, 제3호, pp.355-382, 2017.
 [9] 조숙영, 류은미, “영·유아 안전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2000~2015년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2권, 제2호, pp.159-183, 2017.
 [10] J. W. Best and J. V. Khan, *Research in education*(6th ed.), NJ: Prentice Hall, 1989.
 [11] 정희영, 방승미, 유희진, “유아 인성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제32권, 제5호, pp.277-296, 2012.
 [12] 최혜순, “유아사회교육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2권, 제9호, pp.195-223, 2014.
 [13] 곽승주, 이승숙, 김혜숙, “학술지 논문 분석을 통한 영유아 놀이의 최근 연구 동향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제20권, 제30권, pp.349-374, 2016.
 [14] 김정훈, “국공립·민간 보육시설 안전사고 실태에 대한 차이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14권, 제3호, pp.177-195, 2010.
 [15] 권경숙, 박지영, “어린이집 영아 안전사고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경험 및 영아 안전 교육,”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14권, 제4호, pp.7-31, 2010.
 [16] 윤선화,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유아교사의 안전사고 실태,” 육아지원연구, 제7권, 제2호, pp.103-123, 2012.
 [17] 정유진, 정진주, “충북 청주지역 유치원 내 안전사고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농촌건축·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 제3호, pp.1-8, 2014.
 [18] 강민구, 최순용, 나건, “디자인적 접근을 통한 유아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연구 - 유아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및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1권, 제3호, pp.1-10, 2015.
 [19] 신지훈, “영유아 중독사고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7권, 제4호, pp.63-77, 2017.
 [20] 김지영, 김나림, “가정내 유아의 안전사고 유형과 부모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0호, pp.454-461, 2017.
 [21] 하선혜, 서현아, “부모의 안전 실천수준에 따른 가정내 영유아 자녀의 안전사고 경험,” 생태유아교육연구, 제13권, 제1호, pp.31-55, 2014.

- [22] 양진희, 박윤, 여화연,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유아안전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인식,”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제7권, 제3호, pp.221-225, 2013.
- [23] 남혜경, “취약계층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관리 실태조사,” 근관결건강학회지, 제21권, 제3호, pp.246-254, 2014.
- [24] 정재윤, 한정임, 우승걸, “유아용 가구를 위한 텍스타일디자인 개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9권, 제4호, pp.629-640, 2013.
- [25] 유현정, 황혜선, “영유아대상 멀티슈 이용 소비자의 이용행태와 안전추구행동,” Crisisonomy, 제10권, 제9권, pp.49-73, 2014.
- [26] 조성교, 한은주, “유아용 유기면 의류의 소비 및 안전성능인증실태,” 한국의류학회지, 제39권, 제6호, pp.924-937, 2015.
- [27] 차유미, 이진희, “어머니들이 구성한 유아 바깥놀이의 의미:안전과 위험 부담 딜레마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제8권, 제1호, pp.15-35, 2016.
- [28] 권윤지, 김희진, 이연선, “유아안전교육에 대한 유치원 안전업무 담당자의 인식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pp.1-28, 2017.
- [29] 이순자, 박영미, “장애유아통합교육기관의 안전교육실태 및 개선 방안,” 유아특수교육연구, 제11권, 제3호, pp.75-110, 2011.
- [30] 한민경, 김수향,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자연재해 안전교육실태 및 교사의 인식분석: 대구 및 경북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제16권, 제1호, pp.135-162, 2012.
- [31] 이송이, 송원경, “유아안전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개념도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8권, 제5호, pp.67-87, 2012.
- [32] 김수향,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안전교육에 대한 개념도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7권, 제3호, pp.443-465, 2016.
- [33] 김영실, 윤진주, “영유아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제30권, 제4호, pp.49-79, 2010.
- [34] 배지희, 권경숙, 이사임, 이미선,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 실제와 교사의 어려움 및 요구,” 유아교육연구, 제35권, 제4호, pp.223-248, 2015.
- [35] 한미영, 박춘성, “유아교원의 안전의식 및 교원연수에 대한 기초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3권, 제2호, pp.323-343, 2017.
- [36] 강민정, 한선아,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유치원 안전교육표준안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6호, pp.661-671, 2017.
- [37] 김은희, 김상호, 임정하, “영유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33권, 제9호, pp.3-14, 2017.
- [38] 채영란, 유승우, “가정에서의 영유아안전교육에 대한 실태 및 어머니의 요구분석,” 인문사회21, 제8권, 제6호, pp.1057-1075, 2017.
- [39] 이정민, 유수정, 강상, “만2세 영아를 위한 통합적 안전교육활동이 어린이집 내 비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7권, 제6호, pp.125-143, 2012.
- [40] 양수영, “영아대상 너기반 안전교육 방안 개발 및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제21권, 제5호, pp.197-218, 2017.
- [41] 이미희, 이은정, “실종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영유아용 가방디자인에 관한 연구- 영유아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지, 제57권, pp.290-303, 2016.
- [42] 이영아, 고재문, “영유아부모의 아동안전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응급구조학회지, 제15권, 제2호, pp.15-26, 2011.
- [43] 윤선화, 정윤경, “가정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안전교육의 효과,” Crisisonomy, 제8권, 제3호, pp.187-204, 2012.
- [44] 김혜금, “보육교사를 위한 영아 상해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9권, 제3호, pp.1-12, 2011.
- [45] 유구중, 한명옥, “유아교사를 위한 상황중심 유

- 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시안 개발,” 열린유아교육 연구, 제20권, 제1호, pp.317-344, 2015.
- [46] 김혜금, “유아교사를 위한 안전교육모듈 개발,” 생태유아교육연구, 제15권, 제4호, pp.135-167, 2016.
- [47] 최민수, 강혜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수업에 대한 토론 및 평가가 예비유아교사의 안전의지 및 실천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23권, 제4호, pp.325-350, 2016.
- [48] 김수영, 이미경, “가정연계교통안전 그림책 읽기 활동이 유아의 교통안전지식과 교통안전문제해결사고능력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제19권, 제3호, pp.119-130, 2010.
- [49] 남강현, “유아재난대비(생활안전) 및 가정과 연계 유치원안전체계 구축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제11권, 제3호, pp.245-251, 2016.
- [50] 채영란, “유아교육기관-가정을 연계한 유아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7권, 제4호, pp.653-678, 2016.
- [51] 오효선, 홍혜경, “농촌지역특성을 반영한 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8권, 제1호, pp.41-69, 2013.
- [52] 최복자, 정정희, 배재정, “식품안전에 기반한 통합적 요리활동이 유아의 식품안전에 대한 개념 및 태도형성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제12권, 제3호, pp.181-209, 2013.
- [53] 안재현, 성미영, “도시침수대비 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0권, 제6호, pp.53-58, 2010.
- [54] 윤선화, “유아화재사고예방을 위한 화재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방향 탐색,”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제26권, 제2호, pp.112-122, 2012.
- [55] 강수희, 권영중, 김연규, 고승렬, “도시철도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유아, 어린이 대상 표준매뉴얼 개발,”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36권, 제3호, pp.587-594, 2016.
- [56] 김수향, “안전에 관한 그림책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이 유아의 안전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제31권, 제2호, pp.255-283, 2011.
- [57] 김진숙, 김호, “이야기만들기·극연계활동이 유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문제해결사고능력에 미치는 효과,” 육아지원연구, 제7권, 제1호, pp.71-91, 2012.
- [58] 김민경, 이정순, 유구종, “스마트기기 활용 이야기 나누기활동에서의 사회적 행동 및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전자칠판을 활용한 유아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1권, 제2호, pp.263-289, 2016.
- [59] 고정완, 최미숙, “상황역할극 중심의 안전교육이 유아의 안전문제해결사고와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제25권, 제3호, pp.117-133, 2016.
- [60] 김희영, “동영상자료를 활용한 안전교육이 유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문제해결사고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제8권, 제4호, pp.331-351, 2017.
- [61] 유구종, 한명옥, “상황중심 유아 안전교육 수업 모형 개발,”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1권, 제3호, pp.57-85, 2016.
- [62] 한명옥, 유구종, “상황중심 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육아지원연구, 제12권, 제1호, pp.173-198, 2017.
- [63] 박윤, 양진희, “유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문제해결사고와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안전지식 및 안전문제해결사고의 차이,”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9권, 제5호, pp.339-366, 2014.
- [64] 송순길, 김수향, “유아의 개인적 배경 및 가정환경특성에 따른 안전지식과 안전문제해결사고의 차이 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제9권, 제3호, pp.161-177, 2017.
- [65] 박형신, 김정주, 지상숙, “부모의 안전지식, 안전교육실행 정도와 유아의 안전지식, 위험요소 예측능력 간의 관계,”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pp.221-241, 2011.
- [66] 윤선화, 정윤경, “영유아기 어머니들의 안전지식, 안전인식과 안전실천과의 관계 연구,” 육아지원

연구, 제7권, 제1호, pp.115-133, 2012.

[67] 정재경, 성소영, “영아안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실천 및 지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8권, 제2호, pp.125-149, 2011.

[68] 김직호, 허린강, “유아교사의 안전지식과 안전행동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제96권, pp.219-235, 2016.

[69] 김수향, 안은희, “유아교사의 안전지식, 안전통제가 안전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pp.246-254, 2015.

[70] 김혜순, 김인홍, 오원옥, “영유아 안전을 위한 아이돌보미의 안전행동실천 관련 변인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01권, pp.141-162, 2016.

[71] 안은희, 김수향, “유아교사의 유아안전수행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제9권, 제2호, pp.219-244, 2017.

[72] 오재연, 김경란, 최선미, “유아교사의 유아 안전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2권, 제4호, pp.289-307, 2017.

[73] 박영선, 신동주, “유아교육기관 유아안전사고의 잠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34권, 제2호, pp.347-370, 2014.

[74] 오원옥, 석민현, 한지희, 김미림, “보육교사의 영아돌연사증후군예방 활동 실천 관련 변인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07권, pp.117-138, 2017.

[75] 윤선화, “영유아의 가정내 안전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16권, 제2호, pp.101-122, 2012.

[76] 신수경, 김치곤, 오세경, “장애유아통합교육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교사의 안전 인식 및 요구,”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2권, 제1호, pp.213-231, 2014.

[77] 변기동, 권주영, 하미경, “안전성 향상을 위한 유아시설 실내환경계획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4권, 제2호, pp.197-205, 2015.

[78] 부성숙, “한국, 미국, 호주의 유아교육기관 평가 지표 연구: 건강, 안전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8권, 제2호, pp.77-105, 2013.

[79] 양진희, “유아안전지식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8권, 제6호, pp.279-311, 2013.

[80] 조숙영, “3세, 4세 누리과정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유아안전교육활동의 내용 비교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1권, 제6호, pp.177-198, 2015.

[81] 조숙영, 원혜경, “유아안전교육 관련 내용 분석: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0권, 제6호, pp.155-178, 2015.

[82] 최혜윤, “국가수준교육과정의 안전교육내용 및 교수방법 비교연구: 한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3-5세 유아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23권, 제4호, pp.1-31, 2016.

[83] 김수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실효성 검토와 방향설정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제33권, 제4호, pp.375-396, 2017.

[84] 최혜진, 남미경, 손원경, “어린이집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 현황과 과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0권, 제2호, pp.43-71, 2014.

[85] 이영석, 이선미, “전환기 대한민국 유아교육기관의 당면과제: 안전인가? 인권인가?,”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23권, 제2호, pp.389-407, 2016.

[86] 하지영, “보육실습 관련 연구 동향 분석: 2003년~2016년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01집, pp.37-66, 2016.

저 자 소 개

성 미 영(Mi-Young Sung)

정희원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가정학사)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가정학석사)
- 2003년 8월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생활과학박사)

▪ 현재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관심분야> : 유아언어교육, 유아재난안전교육

정 현 심(Hyun-Sim Jung)

정회원



- 2001년 2월 :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부(가정학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생활과학석사)
- 2014년 2월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생활과학박사)

▪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강의교수

<관심분야> : 영유아보육, 영유아안전

이 서 경(Seo-Kyeong Lee)

정회원



- 2017년 2월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문학사)
- 현재 :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 유아문해발달, 유아안전교육